

영화보고...문화누리고...감동담고

무주군 작은영화관 기획전 11일~15일까지 13편 상영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가 모든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작은영화관 기획전"을 진행한다.

무주산골영화관(무주읍 예천문화관 내)에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작은영화관 기획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미디어센터협의회, 무주산골영화관이 주관하는 것으로, "아프니까 가족이다", "영화제가 사랑한 작품들", "지구의 아이들", "프로그래머 추천작", "주민시네마스쿨 특별상영"을 테마로 총 13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아프니까 가족이다" 편에서는 "술이 깨면 집에 가지(15세 관람가/11일 18:20~ / 13일 13:40~)가 상영되며 "영화제가 사랑한 작품들"로는 "더 랍스터(청소년 관람불가_한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 / 12일 18:20~ / 14일 13:30~)", "무수탕: 람리의 여름(15세 관람가_2015 칸 국제영화제 수상, 아카데미 & 골든 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노미네이트 / 12일 11:40~ / 13일 18:30~)", "바닷마을 다이어리(12세 관람가_2015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 / 12일 16:00~ / 13일 18:40~)", "자극 섬은남(12세 관람가_2015 칸국제영

화제 감독상 수상 / 11일 13:40~ / 14일 18:30~)"가 준비된다.

"지구의 아이들" 편에서는 "더 매직 : 리틀 톱과 도둑공주 (전체관람가 / 11일 10:00~ / 12일 10:00~ / 13일 10:00~)", "바다의 노래 : 벤과 셀키요정의 비밀 (전체관람가 / 14일 09:00~ / 15일 09:00~)",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 (12세 관람가 / 11일 16:00~ / 13일 10:00~)", 개구리 왕국 (전체관람가 / 11일 10:00~ / 15일 10:00~)을 볼 수 있으며, "프로그래머 추천작"은 "위아영(15세 관람가 / 13일 11:40~ / 14일 18:30~)과 "콰트넷(12세 관람가 / 11일 11:40~ / 12일 18:30~)", "러브 앤 머시(15세 관람가 / 11일 18:40~ / 12일 13:40~)"가 상영된다.

"주민시네마스쿨 특별상영"에서는 "잡똥똥 비밀(11일 18:20~ / 14일 18:30~)"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바다의 노래 : 벤과 셀키요정의 비밀" 관람 후 미술치료사, 심리상담사와 함께 하는 "힐링 시네마 : 그림 속 내 마음 이야기", "힐링 시네마 : 내 마음의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골영화제의 고장 무주에서 열리는 기획전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영화들을 보며 문화도 누리고 감동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넥슨, '서든어택2' 정식 서비스

인기 1인칭 총격 게임(FPS) '서든어택'이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넥슨은 넥슨지티가 개발한 '서든어택2'를 6일 정오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서든어택2 출시를 위해100명이 넘는 개발자가 4년 동안 공을 들였다.

서든어택2는 106주 연속 PC방 점유율 순위 1위, 최고 동시접속자 수 35만명 등 수많은 기록을 보유한 인기 FPS게임이다. 역할수행게임(RPG)이 대세인 국내 게임시장에서 모처럼 신선한 장르 바람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서든어택2는 서든어택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했다.

서든어택에서 사용하던 닉네임은 그대로 쓸 수 있으며, 친구 명단과 클랜(이용자들이 만든 게임 내 모임)명칭 등도 이어진다. 전적과 레벨 등 서든어택에서 쌓은 기록들은 서든어택2 공식 홈페이지의 '내 기록 보관' 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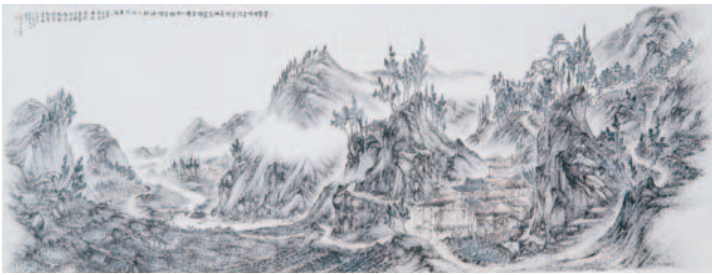
게임 환경은 기존보다 풍성해졌다. 폭과 미션 스테이지와 이용자 대 게임환경(PvE·Player vs Environment) 협동모드 '중요역'이 추가되는 등 게임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넥슨은 서든어택2 정식 서비스를 기념해 28일까지 이용자들에게 게임 캐시 등의 다양한 아이템을 증정한다.

김대환 넥슨지티 개발총괄 이사는 "서든어택2의 풍부한 콘텐츠를 준비했고 앞으로 보여드릴 것이 많으니 즐겨 보고 평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작가로서 두려운건 내 세계가 경직되는 것”

신작 소설 '중국식 룰렛' 낸 은희경



변관식 '춘락풍일'.

도립미술관 '한국 근현대 산수화전'

전북도립미술관은 오는 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미술관에서 '한국 근·현대 산수화전'을 연다.

전시 작품은 먹의 농담으로 빚어낸 산수 정경 76점으로 구성된다.

산수화전에 참여한 55명의 작가들은 형식의 개성화, 형식의 파괴와 재구축, 전통법식의 초월·승화 및 거부로 통해 각기의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산수의 굵고 깊은 정서가 표현된 노수현의 걸작 '산수'와 길이가 420cm인 변관식의 '춘락풍일'을 만나볼 수 있다. 춘락풍일은 정경계 구성진 산촌 풍경 사이로 구부정한 모습의 사람들이 걷고 일하는 장면들을 담고 있으며 칙칙하고 소박한 필치는 한국적 정감을 표현한다.

또한 이상범, 허백련, 김은호, 박승무 등은 한국 근대 산수화가 어려웠는지 그 실상을 보여준다.

전시에서는 지역작가로서 근대 이후 두각을 나타낸 나상복, 남궁훈, 조평휘, 이용휘, 송수남, 송계일, 방의걸, 정승섭 등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 그 지역성이 한국 전반의 산수화와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 조망하는 공간도 마련된다.

이들 작품을 통해 산수화는 전통과 지역성 그리고 현대적인 변모를 거듭하며, 이후 전통기법에서 탈피 새로운 감각과 실험성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현대 산수화 작가들 정하경, 이정신, 정명희, 안동선, 문재성 등은 자신만의 개성과 독특한 현대적 감각을 구사한다.

필묵으로 그린 산수풍경을 가위로 잘라 콜라주 기법으로 현대 산수화를 만들어내는 설박의 어떤 풍경'은 실험성의 대목으로 특기할 만하다.

전북도립미술관 장식원 관장은 "근·현대 산수화는 전통에 근거를 두면서도 변용을 거듭해 왔다. 그러기에 이번 전시에서는 시기마다 작가마다 달리 표현한 특색 있는 산수화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의 개막식은 7월 8일 오후 4시에 개최된다. /정해은 기자

"작가로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건 제 세계의 경직이예요."

신작마다 굵고 세련된 감각을 자랑한 소설가 은희경(57)도 이런 걱정을 했다. "제 기본적인 태도는 '나는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이 틀렸고 부분적이라 생각하죠."

어느덧 중견 소설가가 됐지만 "연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처음 여행을 가본 곳은 젊은 세대나 저나 낯설기는 마찬가지죠. 나이와 성별이 상관없어 지는 거죠."

이런 부담감은 은희경 세계를 확장시킨 다. 불에 달궈져 한껏 굳어진 쇠덩이를 쇠망치로 힘껏 때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호기심과 설렘을 가지려고 하죠."

신작 소설집 '중국식 룰렛'(창비)은 은희경 세계관의 또 다른 확장이다. 술, 옷, 수첩, 신발, 가방, 사진, 책, 음악... 늘 삶 가까이 지리한 사물들을 소재로 했다. 기존에 은희경은 넓은 관점을 점차 좁혀 들어가며 소설을 썼다. '중국식 룰렛'에서는 반대로 사물이라는 좁은 관점을 세상으로 점차 확장시킨다. "굉장히 익숙한 것에 숨겨진 일들을 캐낸다는 상상을 해나가면서 썼죠."

'내용품' 속 내용품을 쓰는 인물들이 특히 그렇다. 내용품이라도 한번 사용했으면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고, 인간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세밀함이 갖는 편축을 쓰는 작가인데 그



냉정한 마초표 속에는 감정의 온기가 감돈다. 스스로 '빈틈없는 비관주의자'로 자처한 은희경에게서 변화가 읽어지는 지점이다.

지난해 손자를 얻어 할머니가 된 은희경에게도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것일까. "사실 나이는 별로 의식을 안 하고 살았어요. 젊게 산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죠. 바로 앞에 닥친 일을 심심찮게 하는 것이 제 태도였죠."

하지만 1970년대 말 여자 기숙사를 배경으로 한 새 장편을 준비하면서 지난 소설을 들춰보니 "이전에는 너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나 혼자 잘하면 되겠지"라는 태도로 글을 계속 써왔더라고요."

물론 작가라는 존재가 사회에 뿌리를 둔 만큼 기본적으로 사회문제 관심은 많았다. 세상에 대한 관심 없이는 글을 쓰기 힘들기 때문이다. /김민근 기자

한글계, 한글날 요일 공휴일제 반발

"그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요일 공휴일제와 관련, 한글계가 "국경일인 한글날을 민간하게 여기고 있어 분노가 치민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국어문화운동본부, 국어순화추진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나신것성역화국민위원회,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맹회, 정음문화원, 외솔회,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한국어문기자협회,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한글빛내기모임, 한글문화연구회, 할버트기념사업회, 훈민정음연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정 요일을 지정, 공휴일로 하는 것이 요일제 공휴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어린이날, 현충일, 그리고 한글날을 요일제 공휴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이대호 회장은 "지금 공휴일은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기념일인 어린이날, 현충일과 명절인 설날과 추석, 석가와 예수 탄신일과 선거일, 일요일이 있다. 이 기념일과 국경일은 온 국민이 등산이나 가리는 날이 아니고 온 국민이 함께 경축하고 기리는 날이라 공공기관에서 정무를 보던 안 피기에 공휴일로 정한 것이다. 이 마당에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더 앞장서서 경축식을 하고 뜻 있게 보낼 행사를 해야 하는데 여행이나 가고 낮잠 지는 날로 여기고 있다. 진짜 쉬고 노는 공휴일은 일요일과 명절이 있고 거기가 더해 토요일도 쉬고 더 놀자는 대체공휴일제가 있다. 또 종교 공휴일인 그 종교를 안 믿는 국민은 쉬고 놀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공휴일은 손대지 않고 나라의 미래 생존에 큰 영향을 줄 국경일까지 건드리니 한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글날은 '훈민정음' 원본의 말문에 적힌 '정통 11년 9월 상한-세종 28년 9월'을 근거로 정했다.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9일이다. /김민근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7월 7일)

<p>▷쥐띠 46년생: 타인의 도움을 받아 성사될 운이다. 60년생: 예상밖의 사립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기 미리 알고 대비하라. 72년생: 계획했던 일에 작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 84년생: 다른 사람과의 시비수가 있다.</p>	<p>▷소띠 49년생: 큰 움직임만 피한다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1년생: 매사에 주의하면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73년생: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 85년생: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니 적극적으로 도와라.</p>	<p>▷호랑이띠 50년생: 매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62년생: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 운. 74년생: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86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침고 인내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p>	<p>▷토끼띠 51년생: 크고 멀리 보아야 하는 운이다. 63년생: 손재수가 있는 운이니 타인과의 화합에는 좋은 날이다. 7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전이 있다. 87년생: 자신만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잃게 될 운.</p>
<p>▷용띠 52년생: 성급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면 후회할 상황 발생.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76년생: 주위의 질투로 인해 구설이 발생하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 88년생: 뒷 사람의 인정을 받는 운.</p>	<p>▷뱀띠 53년생: 계획의 변동, 변화는 실패를 불러온다. 65년생: 덩차게 행동하면 상대에게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77년생: 여자는 남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9년생: 늦은 오후에는 운이 막히게 되니 부지런히 움직여라.</p>	<p>▷말띠 54년생: 주변 상황이 어지러우니 큰 변화나 욕심은 금물. 66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를 요하는 운. 78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날이다. 90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실패수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p>	<p>▷양띠 55년생: 매사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67년생: 망설이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79년생: 인덕은 버리지 마라. 91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활기탈부 하다가는 시비수를 면치 못하니 조심하라.</p>
<p>▷원숭이띠 56년생: 좋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 68년생: 대의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은 좋으나 사리에 처우쳐 행동하면 화가 따르니 조심하라. 80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하라. 92년생: 동기반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p>	<p>▷닭띠 57년생: 나이갈 때와 물리갈 때를 구분하라. 6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주의하라. 8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끈고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운. 93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침착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p>	<p>▷개띠 46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심한 운. 58년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뒷일을 생각해야. 70년생: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82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이다.</p>	<p>▷돼지띠 47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으니 실수를 주의하라. 59년생: 타인에게 오향을 살 수 있는 운이니 지나친 호의를 주위하고 언행을 삼가라. 71년생: 겉 모습보다는 내실에 치중해야. 83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긴다.</p>